

#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의 절대망대를 세운 70인 제자 요한 -복음으로 여는 요한일서- 레위기 19:18, 요한일서 4:7-8

정윤돈 목사님

\* 레19:18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 요일4:7-8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내주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여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의 제자가 될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생명 걸고 올인할 이유를 발견하는 시간 되도록 하옵소서. 성도들이 여러 가지 문제와 의문과 갈등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도전해야 할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 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사랑과 용서와 희생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방법이 이 땅에서 성공자, 정복자, 행복자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방법이야말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 오늘 본문,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고 했다.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다. 저는 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는 말씀이 와닿지 않았는데, 지금 한국이 동족 간에 갈등하고 있다. 우리는 형제 간에 미워하고 갈등한다. 가까운 부모자식과 형제와 동족 간에 갈등한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보면, 이스라엘 내부의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의 갈등이 더 크다. 그게 틈이 되어서 전쟁이 일어난다. 동포와 가족이 서로 사랑했다면 이런 전쟁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랑해야 할 대상들은 좋고 예쁘고 마음에 드는 대상들이 아니다.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다. 램턴트들에게는 공부가 원수같다. 그러나 사랑해야한다. 그걸 사랑하지 않으면 더 큰 저주가 온다. 성경의 사랑은 조건 없이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면 어느 순간 행복과 즐거움과 만족과 돈도 따라올 것이다. 이걸 뛰어넘지 못하면 계속 끌려다니게 된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에게 당연히 벌어지는 사건들이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사랑 안에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할지 이유를 알아야한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내주시고, 자녀 삼아주셨다. 이걸 깨달으면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원수를 갚으며 미워할 수 없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다르다. 넘지 않아야 할 선을 넘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빛의 땅대가 되도록 하는 예배가 그래서 중요하다. 기도가 중요하다. 다 아는데 힘과 능력과 체질이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깨달음과 감동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응답을 주신다. 여러분이 그정도 체휼하는 기도를 한번도 안했다면 신앙생활이 힘들다. 예배를 통해 힘을 얻어야한다. 왜 적극적인

신앙생활이 안될까. 교회와 하나님과 구원과 진도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만 그게 행복이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그런 부분은 다 따라오는 것들이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길이다. 어려움이 있는 주변인을 여러면으로 도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하는 게 사랑이다. 그렇게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야한다. 나머지는 다 따라온다. 예수 잘 믿으면 뭐가 주냐. 다 준다. 한번 진실로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해보라. 어려운 와중에도 참는 게 진짜 사랑이다. 그랬을 때 영육간에 진짜 응답이 온다. 지금 시대에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교회를 살려내야한다. 종교개혁자들은 직업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고 고백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사랑으로 승리하셨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사랑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한다. 그래야 정복자, 행복자, 승리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항상 외우는 토라 중 하나인 출애굽기 말씀에서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원수를 갚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다. 통곡에 벽에 가보면 구약성경을 통째로 외운 사람들이 있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그 결과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재앙과 저주와 전쟁과 갈등을 일으켰다. 우리도 그렇다. 돌이켜보면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못 하더라도 그 언약을 붙잡아야한다. 그 시작이 강단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사탄이 역사하고 모든 문제가 생긴 것이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러분 뜻대로 하는 게 창세기 3장이다. 그걸 끊는 게 순종이고 복종이다. 나머지는 다 응답으로 온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체질이 되어야한다.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하니 인생이 지옥같다. 그래야지 신앙생활도 바르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성공한 것 같지만 계속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된다.

오늘은 요한일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요한일서는 예수님의 열두제자 중에서 마지막까지 살아있었던 사도 요한에 의하여 기록 된 말씀이다. 요한일서는 진리와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요한일서는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깊이 있고 어려운 성경 말씀이다. 왜냐하면 당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던 영지주의자들에게 전하는 말씀이고, 또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랑하십시오.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하는 말을 들으면 꼬덕이면서 원수를 보면 참고 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나. 이걸 깨면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응답이 오는데 사탄은 여러분을 생각으로 속인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앞세우게 한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할 수 없다. 응답을 받아도 천분의 일, 만분의 일도 못 받는다. 사도요한은 요한일서를 통하여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와 복음과 사랑에 대한 절대 망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절대 목표로 설정하고 살아간다면 가장 성공적인 신앙의 여정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인생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정확한 복음을 알고 현장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오래 참아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해보라. 현장의 흑암을 쫓고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라. 그 개인과 그 가정과 그 인생을 사랑해야 한다. 전도와 영혼을 진짜 사랑하면 그 마음이 생긴다. 교회를 채우고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1. 사도요한은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 주셨다. 이것이 진리에 대한 절대 망대이다.** 우리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복음과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려면, 먼저 복음과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야한다. 그러면 나머지 사랑의 사람은 되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항상 느끼고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 마음대로 말하고 싶어도 무의식 가운데 인내하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이 생각이 없는 사람은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람이다.

(1) 첫째로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 상에서 깨끗이, 확실히, 영원히 해결해 주신 분이시다. 요한일서 1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보겠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백만 하면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 우리도 할 수 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정말로 받았을 때 용서와 인내가 어렵지 않다. 나중에는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을 위해서 회생하고 봉사할 수 있다. 주님께 받은 사랑과 구원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고 내 살길만 생각하면 사단에게 속는 것이다. 반대로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현장을 위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생각하면서 살면 할 일이 굉장히 많다. 그게 전도자의 삶이다. 먼저 복음과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2)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우리들을 멸망시키고 지옥에 보내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 사탄의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멸해 주셨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탄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다. 요한일서 3장 8절 후반부를 보겠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란 우리 인간들을 재앙과 저주와 실패로 멸망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일이 그리스도이다. 여러분의 나의 성령충만의 방법, 행복의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3)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구원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때부터 우리들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 요한일서 5장 1절을 함께 보겠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다. 그리고 낳은 이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사람을 참되게 사랑할 수 있다. 예수님이 주인 안 된 사람은 절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4) 네 번째로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는 무엇일까? 요한일서 5장 10절로 12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정확한 증거를 알려주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가 있을까? 감정이나 기분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리를 거스르고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였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지식과 철학과 신비주의로 육신으로 오신 성삼위 하나님인 그리스도를 부인하였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에서는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오셨지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었다고 고백하면서 시작한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을 읽겠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영지주의자와 같다. 말도 안되는 지식을 주장하고 따르고 있다. 굉장한 지식인 것 같지만 사실 사탄의 지식이다. 많은 말을 하고 옳은 말을 하고 대단한 위치에 있지만 그 사람들은 사랑을 절대 할 수 없다.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2.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통하여 사랑의 절대 망대를 알려주셨다. 즉 사랑과 믿음에 대한 상반관계를 알려주고 있다.** 사랑이 깊은 만큼 믿음이 좋은 성도라고 볼 수 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끊임 없이 사랑의 그릇을 키워 나가야 한다. 어린 아이들은 이기적이고 나뻐에 모른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도전해야 하겠다. 먼저 사랑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들을 찾아보겠다.

(1) 첫 번째로 유명한 사랑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이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6절을 보겠다. “사랑은 ①오래 참고 사랑은 ②온유하며 ③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④자랑하지 아니하며 ⑤교만하지 아니하며 ⑥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⑦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⑧성내지 아니하며 ⑨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⑩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⑪모든 것을 믿으며 ⑫모든 것을 바라며 ⑬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오래 참는 것이다. 자기 사랑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이 아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할 수 있어야 한다. 교만한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고 참는다. 이게 참된 사랑이다.

(2) 또한 두 번째로 믿음을 강조했던 로마서에도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기록하고 있다. 로마서 12장 16절로 21절을 말씀을 보겠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췌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의 사람만이 마음을 같이할 수 있다. 높은 데 마음을 두기 때문이다. 원수스 되려면 다른 사람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을 넘어 지극히 선한 응답과 승리를 해야겠다. 하나님이 직접 손보신다.

(3)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인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 말씀을 보겠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참사랑을 이루고 그 방법으로 세계복음화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란다.

오늘은 요한일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오력을 찾아보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한다.

① 영력이다. 최고의 영적인 힘과 깨달음은 성삼위 하나님인 예수님이 유일한 메시아이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이다. 여기서 영적인 힘도 나오고 여기서 참 사랑도 나온다.

② 지력이다. 지금 세상의 대부분의 과학과 지식과 철학과 종교들은 불완전하고 잘못된 지식을 전하고 있다. 우리들은 오직 성경 말씀 안에 있는 참된 지식과 진리를 237 나라에 전달해야 하겠다. -

③ 체력이다. 우리들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조금이라도 몸에 안 좋은 것은 끊어 버리고 호흡, 운동, 휴식, 수면, 음식, 비타민과 예방과 치료를 통하여 건강하게 심신을 지켜나가야 하겠다. 스스로 나의 건강을 지키고 나의 영적으로 힘 얻는 방법을 찾고 스스로 행복해라.

④ 경제력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Heavenly Talent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시킨다면 With, Immanuel, Oneness 한다면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협동 조합이다.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한다. 교회와 성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건강과 경제의 축복도 따라올 것이다.

⑤ 인력이다. 우리 자신과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축복은 만남이다. 세계를 살리고 세계를 복음화할 만남과 팀이 형성되기를 축원 드리겠다. 끝으로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을 통하여 온 세계에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을 전하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 드리겠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지만 주님께서 요한사도를 통해 진리와 사랑의 절대망대를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21세기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살리고 구원할 절대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하옵소서. 세계복음화를 위해 원수스되고 하나되도록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